www.tphtoyota.com
SMART EVOLUTION
스마트의 진화, 스타일의 완성
2016 ALL NEW RAV4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73호 1판 (음력 12월 23일) 2016년 2월 1일 월요일

# 광주·전남 땅값 4년 새 18兆 올랐다

## 광주일보 2012～2015년 분석… ㎡당 각각 6952원·1250원 상승

## 전체 땅값 148兆 … 기반시설 부족·개발 더뎌 상승 폭 최하위 수준

광주·전남의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지난 2012년부터 4년새 각각 3조5402억원, 15조1630억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7번째, 12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타 시·도에 비해 국가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민간개발의 속도가 더딘 탓이다.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투자 실행, 난개발에 의한 자연자원의 훼손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낮은 지가가 향후 상당기간 기업·자본 유치에 있어서 지역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광주·전남의 지가를 분석한 결과 ㎡당 각각 6952원, 1250원이 올랐다. 광주는 세종시를 포함한 8개 특별·광역·특별자치시 중 가장 상승폭이 낮았고, 전남은 9개 도(道) 중 강원(903원)에 이어 8번째로 낮았다. 특히 광주의 ㎡당 지가 상승폭은 부산(4만683원), 대구(2만1368원)에 비해 크게 낮았고, 유사한 인구와 면적의 대전(1만4701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당 평균 지가는 4년간 3만9336원에서 4만5086원으로, 5750원이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2012년 전체 지가는 53조1730억원(38만5604필지), ㎡당 평균지가는 10만8124원이었다. 2013년 53조6413억원(38만6001필지)과 10만8745원, 2014년 54조8216억원(38만3245필지)과 11만1205원, 2015년에는 56조7132억원(38만3161필지)과 11만5076원으로 조금씩 변화했다.

전남의 전체 지가와 ㎡당 평균지가는 2012년 각각 76조7810억원(423만6631필지)과 6905원에서 2013년 82조5083억원(426만1558필지)과 7389원, 2014년 87조252억원(433만2707필지)과 7741원, 2015년 91조9440억원(441만1143필지)과 8155원 등으로 광주보다는 변동폭이 컸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폭은 면적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전의 지가는 지난 2012년 69조868억원에서 2015년 75조6282억원으로 4년간 6조5414억원, 경북의 지가는 2012년 121조787억원에서 2015년 150조370억원으로, 같은 기간 28조9583억원이 급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지가 상승은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기반시설 투자, 개발계획 발표 및 추진, 대기업 등 민간투자 등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광주·전남에 중앙정부·대기업의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흡한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해가면서 낮은 지가를 유지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땅값은 물가상승 수준에서의 변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지가는 곧 부의 판단 기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 토지소유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종인, 5·18묘지서 국보위 참여 무릎꿇고 사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윤상원 열사의 묘를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더민주·국민의당 '호남 제1黨' 놓고

# 사활 건 '광주·전남 大戰'

### 지역 국회의원 8명 對 9명

### 더민주, 새 인물 수혈로 승부

### 국민의당, 예비후보 넘쳐나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간 '호남 제1당' 자리를 놓고 치열한 혈전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민주 현역 의원들의 탈당과 신당세력의 합종연횡이 이어졌던 광주·전남 정치권의 지형구도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체제로 사실상 재편된 모양새다.

현재까지 두 당의 진용은 팽팽하게 갈라진 야권 텃밭의 민심을 반영하듯 호각세다. 현역 의원 분포로 보면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제1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더민주는 맹주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광주에서는 국민의당이, 전남에서는 더민주가 양적 우위에 서게 됐다.

광주지역은 8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당 소속은 천정배·박주선·장병완·김동철·임내현·권은희 의원 6명이며, 더민주는 강기정·박혜자 2명이다. 전남에서는 11명 중 현재 더민주 6명(김성곤·우윤근·신정훈·김영록·이윤석·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3명(주승용·황주홍·김승남 의원), 새누리당 1명(이정현 의원), 무소속 1명(박지원)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현역 의원을 제외한 예비후보자 등 출마예정자들은 대거 국민의당으로 이동해 외견상 더민주는 후보난이, 국민의당은 후보 난립 현상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 8개 지역구에는 총 1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지만, 이 가운데 더민주 예비후보는 6명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무소속이 11명이고, 정의당이 2명이다. 전남지역도 11개 선거구 중 총 52명이 등록한 가운데 더민주 소속 예비후보는 16명에 그쳤다. 무소속이 26명이고, 새누리당 8명, 정의당과 민주당 각각 1명씩이었다.

국민의당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더민주는 참신한 새 인물 수혈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측은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한 선거구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와 오기형 변호사 등 외부 영입인사 투입을 검토하는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박이 새 인물 공천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은 예비후보의 대이동 자체가 호남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예비후보 풀에다 신진 인사까지 결합한 공천을 통해 광주 민심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현역의원 교체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풀어야 할 과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수 명단'이 거의 짜졌으니 선거구만 확정되면 정당별로 본격적인 경선·공천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가전 협력업체 지원 상생협의회' 가동

### 삼성 가전라인 이전대책 논의

광주 가전업계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한 '가전 협력업체 지원 상생협의회'가 꾸려졌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비상이 걸린 협력업체 등을 돕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1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가전협력업체 지원 상생협의회' 출범 회의 및 '산학연관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시와 시의회 핵심 담당자, 광주은행·기업은행·광주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중소기업청,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삼성전자, 지역 1·2차 협력업체 대표들도 머리를 맞댄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위원들은 매월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도 연다.

같은 날 오후 3시 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는 가전산업 산학연관 포럼이 열린다. '광주 에어가전산업 육성계획', '가전업체 업종다각화 전략 및 사례' 등 발표와 가전산업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록도 천사' 수녀 고흥 온다 ▶2면

문화원류－종교의 땅 알흔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지역은 '강진'

### 노성태 광주국제고 교사

### 中·高 국어·국사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고을)은 어디일까? 정답은 요즘 '감성여행 1번지'로 급부상 중인 강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노성태 교사(광주 국제고·빛고을 역사교사 모임 대표)가 내놓은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고장'이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31일 노성태 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강진의 대표적인 문화 원형은 김영랑 시인과 그의 생가, 고려청자 가마터, 백련사 백련결사, 다산초당, 무위사 극락전 등으로 다양하다. 백제·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들도 평균 1～2차례 정도 소개된다는 점에서 강진의 사례는 독보적이다. 〈2면으로 계속〉

/강진＝남철희기자 choul@